

# 도시철도 2호선 착공·AI 기틀 마련 '성과'

## 결산 2019

### ■ 광주시

####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 군공항 이전·청렴도 아쉬움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비롯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 사업 확정 등 해묵은 광주 현안들을 속속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묵은 문제 해결을 넘어 광주형일자리 자동자공장 착공,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성과를 디딤돌 삼아 2020년을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공장 건설, AI 중심도시 원년"= 이 시장은 이날 1년 6개월간의 민선 7기 광주시 15대 핵심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먼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성과로 들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 31일 광주시-현대자동차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 지난 9월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을 거쳐 오는 26일 빛그린산단에서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공장이 새로 설립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이 시장은 "오는 2021



민선7기 1년 6개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민선7기 1년 6개월 성과 결산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년에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1만 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쌓은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정치 1번지를 뛰어넘어 경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광주가 앞선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며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프로젝트는 혁신시정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올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 사업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이후 광주시는 AI 산업 성공을 위해 인재와 예산확보 및 인프라 집적화에 집중한 결과 ▲내년 AI 국비예산 626억원 확보 ▲AI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 출범 ▲미국 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주과학기술원 AI 석박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가져왔다. 턱없이 적은 예산, 북한 불참, 국내 스타선수 부재 등 3대 약조건에도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를 성공한 대회로 개최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난제는 군공항 이전사업, 아픈 손은 '청렴도'"= 이 시장은 난제 또는 미진했던 과제를 짚아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들었다. 이 시장은 "제일 어려운 과제 하나를 꼽으려면, 군공항 이전사업을 들고 싶다. 저와 저희 직원들

이 열심히 일하면 대개 성과를 거두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지자체라는) 상대가 있어 저희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은 1000년을 함께해온 단일 경제문화권으로 경쟁으로 일관하면 공멸하게 된다. 광주가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군공항 이전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행사인 광주도서관사는 우선협상자인 서진건설과 본계약적인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다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어등산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지역 기업들 형편이 어렵다보니, 제 생각과 달리 성과 거두기가 힘들다. 내년에는 성공시키겠다"며 민간사업업체인 공모 4차 사업 추진을 시사했다.

이 시장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선 7기 광주시가 가장 뼈아픈 지점은 '청렴도'라는 평가가 많다.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광주시는 5등급(종합청렴도)을 받았다. 광주시 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민간공공기관 특례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변경 이후 불거진 비리·특혜 의혹과 그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뉴딜300사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남도 200여명 참석 워크숍

### 어촌 발전 공로 15명 표창도

전남도는 23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를 위한 어촌뉴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은 물론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어촌 마을 주민과 도·시군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상삼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이 '어촌뉴딜사업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박수진 우석대 교수의 '어촌뉴딜과 음식관광', 이상목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촌뉴딜300사업' 특강에 이어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현장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한 해 동안 어촌 자원 개발을 통해 낙후 어촌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

여한 공로로 김명일 영광군 법성어촌계장을 비롯한 민간인·공공기관·공무원 등 1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2019년 26개소 2312억원, 2020년 44개소 3750억원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선정 패거리를 이뤘다.

이같은 성과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어촌 주민이 함께 참여해 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전문가 컨설팅, 주민 역량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선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에 어촌뉴딜 전문과정을 개설해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선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 시·군, 전문가 간 협업을 한 것이 전국 모범사례로 꼽혔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어촌뉴딜 사업이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2020년 추진하는 3차(2021년) 사업 공모에서도 더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조례안 206건 처리 활발한 의정활동...지역현안 발빠른 대처도 호평

### ■ 광주시의회

#### 자치 조례 평가 대상·우수상

#### 조례·성명서 엇박자 눈살

제8대 광주시의회는 올 한 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국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에 맞춰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조선의원인 탓에 역량 부족과 한계점도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회는 총 10회, 12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 건강 및 안전 예방, 문화예술 발전, 경제 활성화 등

을 위한 조례안 206건을 처리했다. 또 결산안 18건과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376건의 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체 조례안 206건 중 55%인 114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 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7조9000억원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심의·확정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시·도의회를 순회 방문, 성공 개최를 건언한 것도 눈에 띈다. 한빛원전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빛그린산단 등 67곳에 달하는 지역 현

장방문을 통해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총 73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으며 시청현안에 대해서도 송곳질문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엇박자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대다수 의원이 빠진 채 성명서를 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발의하고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의원 4명 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단체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나현 의원이

11개월 동안 보좌관 급여를 착복하다 적발돼 제명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020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온전한 진실규명과 오월정신 세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건립에도 감시와 견제, 지원 역할을 병행한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변화와 혁신을 통한 광주 발전을 위해 늘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새해에도 더욱 정의를고 내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생활쓰레기 처리 각종 문제 개선대책 필요"

### 신수정 시의원 정책토론회서 주장

광주지역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수십년 동안 독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신수정(민주·북구·3·사진) 의원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운반 현황을 검토해 체계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이(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처리방식의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광주광역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대전광역시 의 대전도시공사의 사례를 들어 광주환경공단과 대항운영을 광주형 '혁신' 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광주는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있어 5개 자치구가 간접경영방식을 채택한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공개경쟁입찰, 북구와 서구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광산구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대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점 수의계약을 비롯해 대행업체의 공무직 전환 요구 등 현행 수거·운반 체계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 워크숍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힌다리새우	58	3	47	9	52	9	157	21
큰징거미새우	35	10	42	12	27	10	104	32

## 양식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1**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4**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2** 배우는 비용이 적정합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5**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 3**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